

## ‘양돈단지가 양식장으로’ ...바다없는 지자체 발상전환 ‘눈길’

화순군, 능주면 정남리 일대 내수면 양식단지 준공 눈앞  
해수부 시범단지로 추진...14일부터 23일까지 분양 신청  
인근에 총 140억 투입해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계획

바다가 없는 지자체에 양식장을 조성하는 발상 전환의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화순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화순군은 6일 능주면 정남리 일대 내수면양

식단지 준공을 앞두고 양식장 용지 10필지 2만㎡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선정 시범단지로 추진된 화순 내수면양식단지는 과거 양돈단지였던 3만

3500㎡ 부지에 양식장 2만㎡를 비롯해 용수 공급시설, 침전지, 저류지, 녹지시설 등을 갖췄다.

화순군은 내수면양식단지 완공을 앞두고 14일부터 23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는다. 화순 내수면양식단지가 들어선 능주면 정남리 일대는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양돈단지였다.

화순군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과 6차 산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수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했다. 바다

가 없는 화순에서 양돈단지를 수산단지로 탈바꿈시킨 역발상의 결과다.

화순군은 내수면양식단지 인근에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를 만들어 수산식품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국비 70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해 3만1060㎡ 규모로 조성 중이다. 수산식품 가공시설과 연구시설,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화순군은 또 6차 산업화를 통해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 개발할 방침이다.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인근 지역의 주야교, 정월성 유적지, 운주사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6차 산업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수 군 수산진흥팀장은 “내수면양식단지 분양 이후 입주자가 양식장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내수면양식단지와 수산식품 거점단지,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지역의 6차 산업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유학생들의 한글날 글짓기 6일 오전 광주 광산구 호남대학교 캠퍼스에서 한국어학과 유학생들이 '남도의 시를 읊다'를 주제로 574주년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를 한 뒤 작품을 들여보내고 있다.

### ‘코로나19 직격탄’ 무안공항 하루평균 이용 83명

광주·무안·여수공항 활용률 ‘뚝’  
공항 적자도 코로나로 증가 추세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광주·전남지역 공항 활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공항 활주로 활용률은 광주공항 6.3%, 무안공항 0.6%, 여수공항 6.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공항 활주로 활용률은 광주

공항 9.5%, 무안공항 4.7%, 여수공항 8.3%를 기록했으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급감했다.

올해 8월까지 공항별 항공기 이용횟수는 광주공항 8790회, 무안공항 882회, 여수공항 3920회다.

지난해 대비 올해 국내선터미널 활용률은 광주공항이 68.9%에서 37.6%, 무안공항이 5.0%에서 0.5%, 여수공항이 23.5%에서 13.9%로 감소했다. 올해 하루평균 이용객은 광주공항 4625명, 무안공항 83명, 여수공항 1583명에

그쳤다. 적자도 지속되고 있다. 광주공항은 2018년 35억원에서 2019년 51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말 기준 2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무안공항은 2018년 138억원에서 2019년 119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8월 기준 98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여수공항은 2018년 135억원에서 2019년 14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8월 현재 81억원을 기록했다. 소 의원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양양공항 사례처럼 지역행사와 연계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방공항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항공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정기자

### 광주·전남 소비자 물가 3개월 연속 상승

#### 호남지방통계청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물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광주·전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49(2015년=100)로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18%, 전년 동월대비 0.4%올랐



갈(4.9) 등이다. 하락 품목은 고등학교 납입금(-100.0), 사립대학교 납입금(-7.0), 상추(-18.1), 휘발유(-0.5), 경유(-0.7), 닭고기(-5.8), 비스킷(-4.3), 탄산음료(-2.4), 휴대전화료

#### 코로나19 장기화·기상여건 악화 따른 가격 영향 식품·주택·수도·전기·연료 등 생활물가지수 주도

다. 특히 전달에 비해 식품과 비주류 음료 가 4.5%, 주택·수도·전기·연료가 2.3%씩 오르며 9월 생활물가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교통(-3.6%), 가정용품·가사서비스(-1.0%), 오락·문화(-0.9%) 등은 하락하고, 주류·담배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전월 대비 오른 생활물가 품목은 전기료(19.3), 사과(56.0), 배추(55.9), 국산쇠고기(7.6), 무(80.7), 오이(60.4), 구내식당 식사비(2.4), 토마토(20.5), 파(20.4), 시금치(25.3), 햄버거(5.6), 버섯(14.6), 바나나(8.7), 마늘(9.8), 스낵과자(3.2), 쌀(1.8), 달

(-0.1)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도 106.84(2015년=100)로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0%, 전년 동월대비 1.1% 각각 상승했다. 전월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3.5%), 오락·문화(1.1%), 주택·수도·전기·연료(0.4%), 음식·숙박(0.4%), 교통(0.3%) 부문 등은 상승한 반면, 기타상품·서비스(-0.2%), 의류·신발(-0.1%), 통신(-0.1%) 부문은 하락했다. 정승호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